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한은 기준금리 4개월만에 인상

□ 한국은행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.25%에서 2.50%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함.

- 7월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했고, 8월~10월까지는 세계경기의 둔화 우려와 환율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들어 기준금리를 동결함.
- 10월 소비자물가가 4.1%를 나타내면서 크게 상승했고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로 해외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과 채권시장이 일시적인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함.

□ 한국은행은 ‘통화정책방향’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이 된 세계경제, 국내경제, 금융시장의 상황 및 전망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음.

-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의 호조세,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로 성장세가 이어지나 주요국의 경기 및 환율 변동성 확대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음.
- 국내경기는 설비투자 부진에도 수출호조와 소비증가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고용도 개선추세가 나타나 당분간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.
- 소비자물가는 채소류가격 안정이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경기상승세와 원자재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함.
- 금융시장은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주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나타나고 장기시장금리는 큰 폭의 하락 후 높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반등했으며,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지속함.

□ 이번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일부 계층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음.

-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 주요 국가의 환율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가운데 최근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음.
- 반면, 일부 가게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.

(통화정책방향, 한국은행, 11/16)